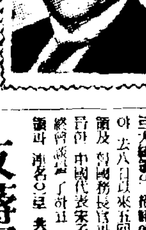
東亞日報
朝刊
本紙朝夕合八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金[illegible]
京城府光化門通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齋藤首相園公訪問
微妙한政局의動向

園公、首相을支援
或種의意思表示?
談話中心은藏相問題
政局安定說有力



【東京二十日發電】 此際非常히 日本의 注目을 모으고잇든 齋藤首相은 午前九時 東京驛發列車로 一路靜岡에 向하야 園公訪問에 赴하얏는데 此日 首相은 午前八時四十分 官邸에서 出發하야 東京驛에 直走하야 [illegible] (寫眞은 西園寺公(上)과 首相(下))

【東京二十日發電】 齋藤首相은 二十日 園公을 訪問 時局收拾의 [illegible] 藏相의 留任에 對하야도 [illegible] 首相은 二十一日 歸京하야 二十二日 藏相과 會見 [illegible]

首相歸京後에
藏相에最後懇請

【東京十九日發電】 齋藤首相은 二十日 興津에 西園寺公을 訪問하고 政局에 關한 意見을 交換하얏는데 [illegible] 高橋藏相의 心境如何에 잇어서는 何人도 確實하게 아는者가 없다 [illegible]

政友會總裁와默契는없다
倒閣의具가됨은困難
辭職斷念한藏相談

【東京二十日發電】 [illegible]

首相、楠長招請
園公會見顚末說明

【東京二十日發電】 齋藤首相은 二十日午後一時 西園寺公訪問後 三時二十分 沼津御用邸에 伺候 午後七時 五十四分 [illegible]

米大統領에
御返電

【東京二十日發電】 外務省發表 = 天皇陛下께옵서 早人맨 米大統領에 對하야 二十日 午後 四時 左와 如히 御返電하옵시엇다 [illegible]

藏相留任後남은問題
政友會의態度如何
政局暗雲一去一來

【東京二十日發電】 [illegible]

政友小川氏
藏相을訪問

【東京二十日發電】 政友會의 小川平吉氏는 二十日 午前十時 高橋藏相을 訪問 [illegible]

極東問題解決의鍵
日米會商重大視
滿洲問題는一般的會談形式
워싱톤 全外交團緊張

【워싱톤二十日發電】 [illegible]

聯合艦隊를
常備艦隊로變更

【東京廿日發電】 [illegible]

蘇聯의回答
米大統領受領

【와싱톤十九日發電】 [illegible]

國際聯盟常任
理事國增加

【聯合제네바十九日發】 [illegible]

反蔣派大部分
市中民間에潛伏
五時間餘의激戰後

【聯合天津二十日發】 [illegible]

反蔣運動의
現實化當然
◇軍部의見解如此

【東京二十日發電】 [illegible]

早宋最終會談
共同聲明發表

【新京十九日發電】 [illegible]

步哨襲擊犯人
蔣直系將校

【北平二十日發電】 [illegible]

局鐵과收擇線連絡

【奉天十九日發電】 [illegible]

瀧川敎授問題
文部省全至躍起

【東京二十日發電】 [illegible]

京城商議定總

朝鮮商工會議所 第二次定期總會는 二十五日까지 [illegible]

銀行聯合會
八十四名出席

[illegible]

次回開催地는
大邱로決定

[illegible]

三月中
爲替受拂高

[illegible]

●腦의疲勞
ノーシン
明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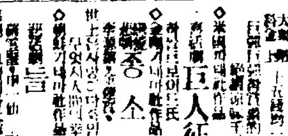
美는貴女의생에서빛납니다
クラブ カテイ洗粉

거리를가는彼女의모던인美
クラブ의カテイ洗粉이만드는
이빛나는靑春美는
봄의魅力이오 歡悅입니다

當選謝禮
平安北道會議員
宣川 洪致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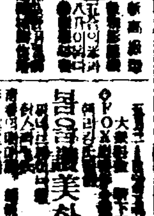
營業品目
處方調劑 醫療藥品 新藥各種 有名賣藥 化粧品各種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洋藥과器械
京城鍾路四丁目
山崎仁壽堂
電話光化門二五六番

東亞醫療眼鏡部
各學校及病院指定
東亞日報 京城販賣部 電光七三〇

職業

蚊帳ハイシン

西野入病院
仁川府宮町十三
電話1116番
診察無料 入院隨意

業職

チツマ
宇沢商店


被害者가 곧加害者?

음핀 十餘名을 取調

간밤도 그저 그대로、또 하로는 간다

幼兒斷頭事件第六日

부내 서대문 관내에서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목을 잘라 버린 단두사건은 소관 서대문서는 물론 도경찰부를 비롯하야 부내 각서가 전부 四일동안에 관내각처 할 일없이 수사 하였으나 二十일 밤十시까지도 이러타 할만한 단서를 얻지못하였다 한다.

사건이 발생된후 四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부형 조차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보아 피해자이지 가해자인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더욱 유력하게 되었다.

그리하야 본래 일정한방향이 없이 비밀할 정도되지 않이 허둥지둥 하든 경찰의 수사활동은 이방면으로 집중하게 되었다한다.

二十일밤 소관서대문서 에서는 사건의 용의자로서、전부터 잡어 들인 거지 十수명을 계속취조하고 있었는데 동서 고등계 주임、사법계 주임、경부주임들은 모다 서에 나타나지않고 이면방면에서 사건수사의 비책을 강구하는 모양이라 한다.

農繁期의 家庭實習을 獎勵

경기도에서는 수년이래 농촌의 번망기에는 각보통학교의 수업을 十일간식 쉬게하고 그대신으로가정실습제도를 설치하고 그기간중에는 학교선생들이 생도들의 가정을 순회하면서 생도들을 지도하고 학교농업과의 가정실습을 실시하야 아왓다. 그성적이 자못양호한 까닭에 총독부에서는 본년도로부터 각도에 대하야 지방의 실정에 응하야 이러한 제도를 실시토록통첩하엿다. 그외에 농번기중 농촌탁아소설치와같은것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잇으므로 경기도에서는 각도에 솔선하야 본년도로부터 유루아탁아소를 개설하고 어데원기라로하야금 이에대한 보호교양에 당하도록 각교수에게 통달하엿다.

四萬名을目標로 라디오大進軍

조선방송협회에서는 이래 「라디오」의 청취자가 날마다 五十명가량이 증가하는데 현재의 청취자수는 二만二천에 달하엿다. 그리하야 동협회에서는 청취자 四만을 획득하기 위하야 조사원을 증원하야 한층 더 활동을 개시하기로 되엿다 한다.

今年度 籠球 選手權

再次 普專陣頭에!

新進三角의 力戰도 不及

연사흘동안 열린대회원만종료

금년도 조선의 농구선수권을 획득할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와 조선체육회 주최、본사 후원의 제二회전조선농구선수권대회는 작二十일 오후二시 종로청년회 마당에서 최종의 결승전으로 보성전문 대 삼각(普專對三角)으로 열리어 선수권을 다투게 되었는데 五十五대十四로 보성전문이 선수권을 획득하엿다. 이날의 경기는 더욱이 관중의 흥미를 끄는 [illegible]

◇사진은 보성전문대삼각

【前半】 新進의 三角軍이 昨年의 選手權 保持者인 普專에게 [illegible]

	【三角】	反	前	後
	【普專】			

普專勝

前二八 後三四 十八 一

三角苦戰 55—14

普專對三角決勝戰은 午後二時 [illegible]

【後半】 [illegible] 普專이 [illegible] 對六으로 이기니 計五十五對十四로 三角軍은 明年을 期約하고 물러섯다.

梨專新校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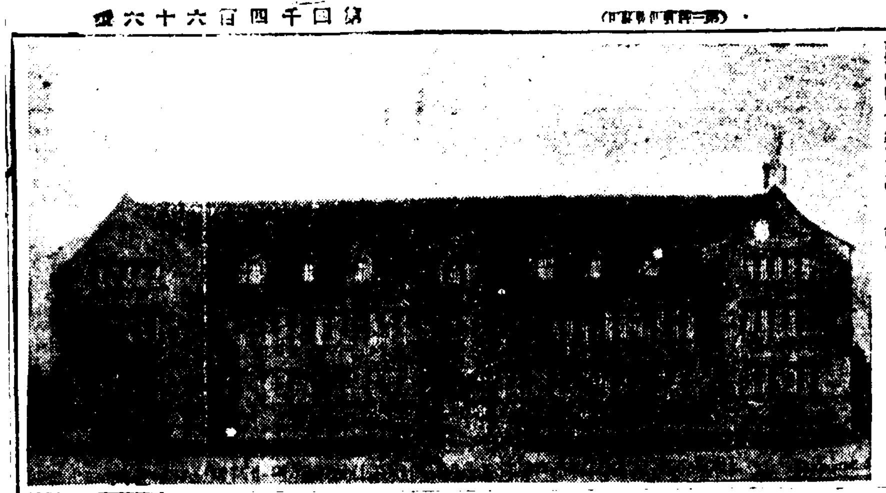
定礎式을擧行

六月十日新基地에서

이화여자전문학교(梨花女專)는 벌써부터 교외 연희면(延禧面)에 새로 교사를 건축코자 기지를 매수하고 모든 설계를 마친후 금년봄 해빙후로 부터 기지공사에 착수하야 마치매 오는 六월十일 오후 두시 신교사의 본관 정초식을 거행할 터이라는데 동교 관계자는 물론이오 학부형이며 후원회 유지 제씨의 다수 참석을 바란다고 한다.

이번 공사는 본관으로 부터 시작하야 음악과과 체육관등 새건물을 명년 七八월까지에는 준공하게 하리라고 한다.

이 공사비는 본관이 二十七만 三천원 가량이오 전부 四十六만 三천원 가량이라 한다.



◇사진은 장차 신축될 본관 정면설계도의 외관이다.

滿浦鎭對岸의馬賊

朝鮮婦人三名拉去

산나물 캐러갓다 마적에게 잡혀

三千圓보내라고脅迫狀

【만포】 평북 만포진대안(滿浦鎭對岸)에 마적이 출몰하야 동포들을 위협하야 하기 [illegible] 十六일에는 [illegible] 동포의 부인 五인이 산에 산나물을 캐러갓다가 마적에게 잡혀갓는데 그중 二인은 도망하야 왓고 三인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엿는데 마적들은 [illegible] 三천원을 보내라고 협박장을 보내어 왓다 한다.

食堂會食中에

七千圓詐欺

◇피해자까지 잡히게된

金密輸團의內訌

시내 종로정청 화월(花月) 식당에서 지난 十九일 오후 [illegible] 사이에 [illegible] 피해자가 [illegible] 七천원을 사기하야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 잇다 한다. [illegible]

빠조王崔君獨奏會

본보 안동현 지국 주최로

廿二日安東縣에서

【안동현지국전화】 본보 안동현지국(安東縣支局)에서는 오는 二十二일 오후七시부터 안동현 지자(南地子)에서 미국의 [illegible]

作業中의 헌널이 문어저

人夫二十名이生埋

◇高城郡下의大慘變

작二十일 아침 아홉시경에 동해북부선의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illegible] 공사중인 「턴넬」구내에서 「턴넬」이 무너져서 작업중이던 인부 二十여명이 생매되었다 한다. 이까닭에 철도국에서는 목하 구조중에 잇다 한다.

酒客치려구며 金錢을 强奪

【대구】 지난 十二일밤 열시경 [illegible]

防空講演과映畵

경성부에서는 방공연습에 관한 부민들의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야 오는 二十五일 오후七시부터 동시에 수송공립보교 [illegible] 방공강연회(防空講演會)를 개최하고 [illegible] 영화를 하리라 한다.

當節한染病

市內에蔓延

경성시내에도 만생되어잇는

流行性腦脊髓膜炎

경기도 관내에서 금년一월 이래로 一백상케 되고 잇는 천연두(天然痘)는 [illegible] 경성시내에서는 지난 四월이래 재작十九일 까지에 발생된 [illegible] 유행성뇌척수막염(流行性腦脊髓膜炎)환자 [illegible]

玉仁洞에行旅死亡

十九일 오후二시경에 부내 옥인동(玉仁洞) 十九번지 앞 길가에서 연령 五十가량의 [illegible]

입은치마까지

벗기는사기戰術

상투잇는 七인조의 사기단

반지 속이기로 유명

경북 [illegible] 상주군 사벌면 [illegible] 박봉학(朴鳳學) [illegible] 이라는 [illegible] 수인을 [illegible] 그리하야 [illegible] 이 방면에 [illegible] 한다.

教護聯盟

來月中에結成

경기도 학무과가 주체가되어 계획하고 잇는 교호연맹(教護聯盟)의 결성은 착착 진행되고 잇는데 [illegible]

◇四博士祝賀會의밤 중앙(中東)학교동창회주최의 그학교출신으로서 박사의 학위를 얻은 四씨의 축하회는 예정과 같이 작二十일밤 [illegible]에서 성대히 열리엇다. 이사회의 사회는 동회의 회장 최규동(崔奎東)씨가 하였고 그다음에는 전기四씨중에 三씨가 답사를 하였으며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만찬을 가치하고 十一시경에 헤어지엇다.

문둥병 치료에

양잿물목간

결국병자를 삶어죽여

【안계】 지난 十六일밤 경북의성군 단북면 이연동(二連洞)에 사는 배유성(裵有成)은 시방을 치료하다가 지사하엿다는데 배유성은 평소에 문둥병으로 상 이러가지로 [illegible] 약감을 조합하야 방구솥에 [illegible] 자를 늘히고 부모도 보지못하게 하고 목욕을 시키엇다고 한다. 이리하야 밤十시경에 어데서무한 이도 신음하는 소리에 [illegible] 검시의 결과 그는 만성위장가답아(慢性胃腸加答兒)로 죽은 행려사망자로 판명되어 그 시체는 경성부에 넘기엇다 한다.

지금엔 진기한듯하나

해야할 가정부인운동회

조선직업부인협회(朝鮮職業婦人協會) 주최의 가정부인대운동회는 예정과같이 二十일 오후 一시부터 녹음이욱어진 장충단공원에서 개최되엇다. 지금엔 진기한듯하나 해야될 이운동회는 이로써 신기원을 지엇다.

釜山福岡線

今月中開始

京城파日本各都市間

通話試驗은來月初旬頃

조선、일본 연락의 복강(福岡)—부산(釜山)간 [illegible] 시험대되어 [illegible] 경성、인천、개성 [illegible]

陽 五月二十一日(日曜) 陰 四月二十七日(丁亥)

日出 前五、一九 日沒 後七、三九

月出 [illegible] 入 後 四、四九

【滿潮】 仁川 [illegible] 釜山 [illegible] 木浦 [illegible]

日曜講話

▲貞洞敎會 (午) 어찌하야 하나님이 [illegible] 金永燮

▲中央敎會 (午) 水作的 [illegible] 姜泰熙

▲鍾路敎會 [illegible]

▲水標橋禮拜堂 [illegible]

▲向上會館 [illegible] 李智光

運動競技

中等校籠球

大東優勝

延專主催의大會

延專主催、第三回全朝鮮中等學校籠球大會(朝鮮日報後援)는 十九、二十兩日間 延專코트에서 열렷는바 大東商業軍이 이겻다. 그得點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青學34(13—8 / 21—9)17公民

—【第二回戰】—

中東33(23—4 / 10—15)19普隣

大東48(16—6 / 32—8)14中央

儆新37(21—7 / 13—12)19京實

青學24(10—9 / 14—13)22松高

—【準決勝】—

中東66(35—7 / 31—19)26青學

大東42(27—5 / 15—23)28儆新

—【決勝戰】—

大東34(19—6 / 15—24)30中東

中等校陸上

六月十一日擧行

京城高商主催의 第七回全朝鮮中等學校 陸上競技大會는 六月十一日 午前八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參加申請은 五月末日까지이오 詳細는 高商에問議하라고한다.

東京六大野球

早大10A 帝大0

【東京二十日發電通】 東京大學野球聯盟리그 早大對帝大戰은 二十日 午後二時四十二分 神宮球場에서 藤田(球)森田、齋藤(球)三氏審判、帝大先攻으로 開始、十A對零으로 早大 大勝 (開戰四時三十八分)

投捕(帝)篠原、梶原—黑岩(早)山田、福田—三浦、安打帝四、早十四

得點 (帝000000000=0 / 早02200600A=10A)

金華山保健體操隊

會員을募集 鍾路靑年會

[illegible] 金華山保健體操隊를 만들어 以來、高文相、殷鼎鎭兩氏의 熱心으로 繼續하야 오는바 이번에 隊員을 널리募集한다는데 詳細事項은 다음과갓다.

每日 새벽六時부터 三十分동안 金華山에서 보스體體操를 行하며 服裝은 隨意로하나 簡單하게할것이라한다. 責任者는 高文相氏라한다.

데杯戰歐米손

北米洲손에米國優勝

【온토리올十九日發電通】 데杯北米손決勝 아메리카對 카나다의 複式戰은 米二勝의뒤를 이어서 行한바 스트래트로 카나다가敗하야 米國優勝하엿다. 南米손의 勝者 아진틴과 對戰하기로되엇다.

日本勝하야準準決에

【디브린十九日發電通】 데杯歐洲손第二回戰 日本對 愛蘭複式은 日本二勝의뒤를이어 行한바 布井佐藤組의 活躍으로 愛蘭組를이겨 日本은 準準決勝에 獨逸對和蘭의 勝者와 對戰하기로 되엇다.

運動界動靜

▲裵乙秀君 (올림픽拳鬪選手)은 職業拳鬪選手로 米國에 건너가 活躍하고잇는 徐廷權君의 姉氏 廷愛(二二)孃과 二十三日 午前十時 順天邑 新婦의 집에서 結婚式을 擧行한다고 한다.

◇寫眞은 新郞과新婦

▲河西아나운서歡迎會 京城運動記者 俱樂部發起로 今二十一日 午後 八時 蓬萊閣에서

今日運動

▼籠球리그戰最終日 午後三時부터 普成코트 (徽商—大東、中央—普成、徽文—中東、普成—百合決勝戰)

▼實業野球리그戰 鐵道—京電、遞信—府廳各第二回戰 午後一時부터龍山球場

▼中等校野球리그戰 (鐵道—京工、京師—京中、용中—善隣) 午前十時부터京城運動場

▼普成高普第十一回校內大運動會 廿一日午前八時 惠化洞同校에서

▼漢城洋服商組合大運動會 午前九時 神武門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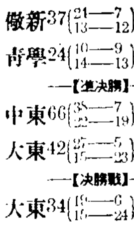
謹告

黃鳳淵氏二男乙秀君과徐丙奎氏長女廷愛孃의華燭之典을來五月二十三日午前十時全南順天邑徐丙奎氏邸에서擧行하옵는바 時多忙한 川치옵가念慮하야請牒을送呈하지아니하오니 平時愛顧하시는諸位는式當日에光臨하여주시음을仰望하옵나이다

昭和八年五月二十日

幹事者 玉璿珍 拜白

當選謝禮



今般咸鏡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 有權者諸彦의熱熱한後援下에生의當選의榮을蒙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感謝의禮를드리나이다

昭和八年五月十日

咸南三水郡江鎭面 姜英模

當選謝禮

今般平安北道會議員選擧에際하여有權各位의深厚하신同情과各有志諸賢의熱熱하신聲援으로不肖幸히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意를表하오며아울러今後倍前鞭撻을加하시와一般道民의期待에勿負케하여주시음을懇望不已하나이다

義州 高秉哲

謹謝當選

今般平安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彦의絶對同情과有志諸氏의熱熱한後援下에當選의榮을得하엿삽기玆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泰川郡 金炳濟 白

當選謝禮

今般平安北道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諸氏와有志諸賢의熱熱한同情으로當選의榮을蒙하얏싸옵기玆에紙上으로써謝意를謹表하나이다

五月十日

寧邊 洪在璟

當選謝禮

咸南道議員

李曦燮

祝東亞日報社南陽分局設置

水原郡陰德面 面長 洪承殷

모양잇고질긴

고무 표 신 별

단연코신어보시요

갑싼삼신사켜레목당함으로

결국경제가됨니다

京城並木町

中央商工株式會社

漁具 投網 (四分目 二等 八十圓 / 五分目 二等 八十圓)

極上絹絲製各種

京城府古市町一丁目派出所前

漁具 網商 秋岡商會

電話本局 二三九〇番 振替京城 二五六〇番

定價表進呈

男女痲疾之靈藥

治痳球

定價 五十個入 一圓 / 百八十個入 三圓 / 二百二十個入 五圓

京城南大門內 製造元 發賣元 救世藥館

振替京城一九六九 / 振替京城 一二六九

皮膚病藥 데-무水

肥滿劑

東京市麻布 三河大町 小川藥院

위조약을 사기꾼

腦病 늑막염

有田도랑구藥房

有田音松 吉任製劑

매림 독질

거듭 온 비에 各地雨量豊足

咸興 【함흥】 함주지방에는 四월이래 오랫동안 가물어 계속되는 늦에 一적 우량의 비가 지난 十四日에 한동안 나렷으나 그분량이 조금 적엇든바 지난 十九日 오전 二시경부터 여세시간동안 비가 나리어 이제는 모든 농민들에 풍성한 성공을 주게되엿다 한다.

中和 【중화】 평남중화 一대는 오래동안 비가 나리지 안어 수운중에 잇든바 지난 十八日 오후 一시경부터 봉일 밤까지 단비가 나리어 일반농가에서는 크게 기뻐 한다고 한다.

高城 【고성】 강원도고성지방에는 오래동안 계속하는 한발로 인하야 一반농가에서는 수운중에잇든바 다행이 지난 十八일 오후 四시경부터 일천몇일의 단비가 나리는동이므로 하고 말리가든 만물은 다시 살게되엿다.

加平 【가평】 가평지방은 三四일전 비가 내리엇중 지난十八일밤 호우가 쏙

公州 【공주】 충남공주(公州)지방은 한발이 심하야 보리의수확은 반감될상태에잇고 모판에 물이말러서 농가에서 크게걱정중이든바 十四일부터 비가나리기 시작하야 十七일 오전 十시까지 一백六미리의 비가 나렷으므로 백작은 물론 면화수확이나 一반농가에서는 크게기뻐하다고한다.

南川 【남천】 황해도평산(平山)군일대에는 한발이심하야 농작물에 피해가많이 걱정중이든바 지난十八일부터 나리는 비로인하야 농작물이 소생하고 입종이 끄루 피고 백작은 평년작이나 되리라한다.

新溪 【신계】 황해도신계군일대에는이래 비가 오지를 아니하야 일반 농가에서는 매우 우려중이든바지난十八일 오후 四시경부터 비가 나리기 시작하야 十九일까지도 끗치지 아니하엿다는데 수전에는 부족하나 채소는 물론 서속 입종이 잘되며 보리는 발수가 잘 될이라고 일반농가에는 매우 기뻐하는 중이라한다.

海州 【해주】 고일 가뭄으로 인하야 一반 농가에서는 우려하이 지시않는바 지난 十八일에 대망의 비가 나리어 서 농가에의 기쁨을 주엇다한다. 해주 농사시험장(海州農事試驗場)의 발표에 의하면 十八일의 우량이 ……이엇다 한다.

羅津港土地所有別 朝鮮人分은卅%

四원、十원 이든것이 지금 三十원 大阪號土地七十萬坪

【나진】 나진항(羅津港)의 조선인토지소유 관계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당지대판호(大阪號)는 七十六만평이라하는바 대외에 드러가서 대판호에서 나진 지가 二十만평, 나진지의 토지가 五十六만평이라는바 남이지 반도(飯島) 북전(北田)등의 소유토지인 七十%이상이 일본인 소유라 한다.

安岳鐵道期成臨總

【안악】 안악에서는 …… 신천, 지도(信川―猪島)간에 철도가 생긴다 하야 …… 지난 十八일 오후 一시 안악면회의실에서 ……

蔚山水總代會

【예산】 …… 울산수리조합(蔚山水利組合)에서는 ……

密陽支廳復舊 陳情六人上京

주민의 중대문제라고 하여 郡民代表活動猛烈

【밀양】 경남 밀양군(密陽郡)에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密陽支廳)을 복구시키고자 군민대회 대표 三十四인 ……

小作爭議調定 法院에서郡委員에

解決치못하고保留

【마산】 지난 十七일 창원군 창원면 …… 창원군(昌原郡) ……

城津貯木場

起工祝賀準備

【성진】 함북성진항(城津港)에 ……

各地端午노리

中和 【중화】 평남 중화읍 ……

花臺 【화대】 함북 명천 화대시(明川花臺市)에서는 ……

求智 【회령】 경북 ……

延安 【연안】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에서는 ……

眞池洞 【진지동】 평남 용강 진지리(眞池里) ……

鎭興 【진흥】 ……

瑞興 【서흥】 황해도 서흥읍에서는 ……

陽德 【양덕】 양덕군 양덕(陽德)시민 ……

勝湖里 【강동】 평남 승호리(勝湖里) 번영회(繁榮會) ……

楚山 【초산】 ……

咸興 【함흥】 함흥상의회(咸興商議會) ……

南川 【남천】 평산군 문구시(文區市)에서는 오는 단오가절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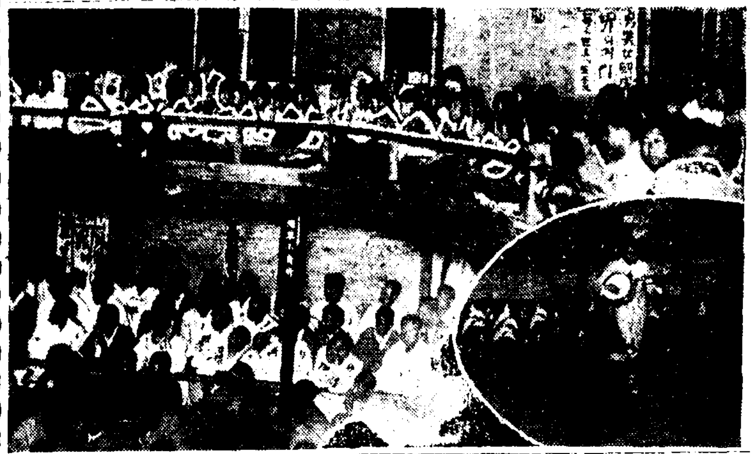
長津 【하갈】 ……

古邑 【고읍】 ……

江陵 【강릉】 ……

場所 下南川 ……

宣川 【선천】 선천 시민 ……



生活難으로 飮毒코自殺

【함흥】 함흥에는 지난 十五일에 또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 ……

羅津築港前提로 厚倉洞築港着手

長門組에落札、八月末竣工 工費十二萬四千圓

【나진】 나진에 나진건설사무소(羅津建設事務所)에서는 ……

世上을 등진 人生

細坪面에서 公普校新設

六月中에開校豫定

【서흥】 서흥군 세평면에서는 ……

浦項市民運動

【포항】 제五회포항시민대운동회(浦項市民大運動會)는 ……

베조獨奏會 宣川에서盛況

◇雨中에도大滿員

【선천】 ……

汽車에치여 青年이轢死

【군산】 지난十七일 오후 ……

走馬에깔려 一名이絶命

【철산】 ……

德川少年溺死

【덕천】 평남 덕천군 ……

婦人公論

若鮎のやうに新鮮な 六月特別號

特別大附錄 夏の婦人子供簡單服全集

婦人生活の大革命！大進歩と早くも大評判の大豪華全集。言はぬは言ふに優るとは本全集のこと一刻も速く書店で手にとられよ。これだけでも二三圓の値打です。婦人服八十五種の作り方及流行スタイル畫報尚この他に特選型紙六種贈呈

世に虐げられた 愛妹昌子を憶ふ 富田迪夫 本誌絶体獨占手記

遂々「怪奇なる三原山事件」のヒロイン遂に逝く・實兄迪夫氏の心中や如何に。これぞ世の迫害に倒れし愛妹のために涙を揮ひつ・社會に贈る手記

私の見た金子しげり氏の離婚事件 市川房枝

夫から離婚裁判を提起された婦選同盟の金子女史の眞相は最も親しき市川女史の手によって完全に傳へられた。

青春悩み多きを語る實話珠玉篇

芝山司子と恋愛結婚に破れるまで 清水いと

十九の春を恋愛結婚に失敗して、その痛手に泣いた著者が芝山子爵令嬢との二度目の恋愛結婚に破れるまでの哀しき手記。

憧れの楽土満洲に處女を失ふの記 佐々木房代

満洲楽土にあこがれて一攫千金を夢見る可憐な處女の悲話。誰か涙なからん。

裏切られた許婚の女性が涙もて 若様と女中の恋

美しい許嫁がありながら、ふとしたことから年上の女中と戀に陥入った若様。

★ 蘇翁小話 心機轉換法 德富蘇峰

一字千金百萬金の價値ある文豪蘇峰先生の處世訓。人生何事をなすにも心の持方大切と懇々と説かれた有益文字。

法律が見た娘・妻・母・寡婦 中川善之助

法律は女性を弱きものと見て保護してゐるが、今日では不備の點も多い。しかし先づこれだけは心得て置く必要がある。

アナトオルフランスの生涯と作品 吉江喬松

「シルヴェストル・ボナルの罪」「タイス」「バルタザアル」の作者として、なつかしき文豪の生涯と作品を述べた珠玉篇。

世界經濟會議の話 牧野輝智

資本主義經濟の建直しにロンドンで開かれる世界經濟會議は果して不景氣を追拂ふか何うか？

內外時評 世界經濟救出案・日本品の投賣問題 山川菊榮

殺伐にして公平、飽くまで客觀的ならざる時評として論壇唯一の定評あり。

處女性と貞操を守る唯一の道 大槻憲二

女性の悲劇は貞操の悲劇だ。而して貞操を失ふことは男性のみの罪ではない。如何にして貞操を守る可きか？

関西俳壇の巨星青木月斗氏一家 娘から父への離婚要求問題

前に艶種を蒔いた風流人青木月斗氏一家に起った娘から父への離婚要求問題ははしなくも「父と子」との對立となり、茲に近代悲劇の風貌を呈するに到った。各人の心境や如何。その訴ふる處を聽け！

☆女……青木月斗 ☆悩み生くる……妻 敏子 ☆新しい人生へ……娘 葛子

家庭紛爭の全貌を見よ……河東碧梧桐 ◈批判お互に融和を……新妻 伊都子 ◈葛子様に……土屋奈良枝

特輯寫眞版 掛合抒情詩行進曲 西條八十(監修) サトウ・ハチロー

入十「しづかに今日は忘れまん 呼べど返らぬ昔なり」
ハチロー「しづかに今日は 青春まん 遊びに行きたし金はなし」

わたしの結婚 伏見直江

スクリーンの女王が結婚するので(姦通した方もせめてこれだけを) お氣に召すま丶 三宅文一郎

崩れゆく聖堂希望社 西 玲亭

讀んだら止められぬ小說

黄昏の薔薇 德田秋聲
女優 北村小松
女性は強し 佐々木邦
青い寝室 林 房雄
男装の麗人 村松梢風
お千代傘 吉川英治

秋 あ だ る 青 春

うら若き日の秘めたる胸の、遠き日の想ひ出のいっしか疼き、たまさかの夜半に忍び泣く女性に捧ぐ

過去の間違ひに悩む女性へ……山田わか

秘めた(實話)る青春 處女時代に犯された秘密……齊藤とし子 悲しき白薔薇の思ひ出……石島陽子 告げられぬ嘆き……樺山芳子

秘めたる青春を告白した経験

▽さりげなき告白の涙……赤木三千代 ▽告げざりしなば私の場合……水原れい

秀才教育のためわが子を死なす

若き商大生の悲しき自殺に遺されし母の心や如何に。一言一句皆血の文字……實母 淺井いにし

◈親のエゴイズム(僕の頁)……嶋中雄作

妻の地位を脅かす「第三者」への抗議

◻ 悩ましき白鐵へ……相良ユリ子 ◈忍び難い妻のゆく道……高木 壽

稀代の結婚魔を夫に持つ妻の手記 喜多清香

◈女教員の貞操……山下德治 ◈破爪病とは何か……保坂孝雄

嬰兒殺し川俣と私との関係 瀬崎むつ子

致命の身にありながら夏の夕べに知りあった男から川俣とも知り合ひとなる恐しき事件の一切を明るみに。

病人料理……香川綾子

疫痢の豫防と家庭の手當法……竹内薫兵

夏に多い水蟲の治療法……吉川 賢夫

脂のう く鼻のお化粧法……メイ・牛山

風味ある川魚料理……小泉 迂外

ビールの香と夏休め十二種……宮澤ひさの

素人で出來る結婚調査……伊東 英長

どもりの自宅矯正法……

ひどいドモリが必らず治る……小林 富次郎

傘と履物の手入法、六月の献立……

洋装相談・美容相談

廿秒で出來る大泉式基本健康術

本號特價 共に七十五錢 中央公論社

好評又好評 絶讃

한글綴字法

「新綴字便覽」의 解說 【十九】

李允宰

[illegible] 너가지중에 나는 [illegible] 案에 贊同하고십다. 다만 [illegible] 되기 쉬운 경우에만 中間人을 쓰지 안는 것은 ㅣ까지는 [illegible] 만코, 그아래 [illegible] 에 맛기더하야 쓰는 식이 더욱 좋을 것이라 한다.

이제는 中間人을 어떠케 써야 할 것을 아래에 例를 들기로 한다. [illegible] 바르고 [illegible] 이다.

1. 우에 말 끝이 홀소리(母音)인 경우에는 人바침을 붙임.

新	舊
갓지(假枝)	가ㅅ지
젓가락(箸)	저ㅅ가락
곳간(庫間)	고ㅅ간
웃사람(上級人)	우ㅅ사람
잇몸(齦)	이ㅅ몸
담뱃대(煙竹)	담배ㅅ대
귀엣고리(耳環)	귀에ㅅ고리
옛시(昔時)	예ㅅ시
기왓장(瓦片)	기와ㅅ장
가욋것(例外物)	가외ㅅ것
가쳇밥(?)	가여ㅅ밥

이와 같이 中間人 되는 경우 [illegible] 으로 말하면 바침을 할 것이다. 이것이 人을 바침으로 쓸 때이나 中間에 따로 두나 發音하는데에 아무 關係가 업는 것이다. 또 이러케 씀으로 발음 影響이 아주 업는 것이 아니요, 다만 소리에 맛치기 위하야 人을 [illegible] 씀이다. 이와 같이 [illegible] 하면 [illegible] 에 맛게 [illegible] 하야 [illegible] 것이나 [illegible] 에 [illegible] 하야 쓰는 것이 [illegible] 이 [illegible] 하다 하야 [illegible] 로 본 것이다.

2. 우에 말 끝이 닿소리(子音)인 경우에는 人을 쓰지 아니함.

新	舊
손가락(指)	손ㅅ가락
할아버(?)	할ㅅ아버
군일(無益事)	군ㅅ일
물결(波)	물ㅅ결
물속(水內)	물ㅅ속
물약(水藥)	물ㅅ약
봄바람(春風)	봄ㅅ바람
밤일(夜役)	밤ㅅ일
탈요(?)	탈ㅅ요
강가(江邊)	강ㅅ가
강엿(?)	강ㅅ엿
떡잎(初葉)	떡ㅅ닢
곁일(?)	곁ㅅ일
앞일(前事)	앞ㅅ일
갓양(?)	갓ㅅ양
젖니(乳齒)	젖ㅅ니
밭이랑(田畝)	밭ㅅ이랑

이와 같이 바침 잇는 [illegible] 자 아래에는 人을 빼고 쓰는 것이다. 이것을 입는 보면 [illegible] 말에 [illegible] 이 들리는 듯하나, 더 따지어보면 그다지 [illegible] 이 업다. 우의 말 [illegible] 에 [illegible] 바침을 입을 때에 [illegible] 의 [illegible] 을 이루고 다시 아래의 말을 [illegible] 히 읽으려 하면 두 말 소리 사이에 自然히 [illegible] 化 할 [illegible] 을 일으키어 소리가 되게 나게 되는 것이다. 가령 「하여 [illegible]」, [illegible], 떡잎, 앞이, 젓이, 밭이랑, 을 지내도 [illegible] 하면 「하 [illegible] 무릎 바람 나되 떡식, 아 떡 지직 바라방[illegible] 로 하엿 으니 우에 말과 같이 갑이 부 [illegible] 사이에 [illegible] 이어 소리가 되게 나게 되는 사이 다. 그러고 풀이씨(用言)로 되는 [illegible] 가운데 「갑人다 (附 眼)」「갑人고」「안人다(抱)」「안人고」와 「하人고」「하人가」「하人고」와 같은 [illegible] 다 「가다」「가고」「안다」「안고」「하가」「하고」 로 쓸 것이다.

명랑한 첫여름 기분에 맛추자면 집안은 어떠케 꾸밀까?

손쉽게 시원스러우로 꾸밀 수잇는 몃가지

(3) 女子技藝院 張善禧女史 談

다듬으로 마루이겟습니다 마당에 [illegible] 하시사 첫눈에 [illegible] 는것이 대청이니 마치 마루가 침침하게 지워지고 사이 맛게 [illegible] 이 세자리에 잘 놓이어야 집안이 좋아 보이고 정돈되어 보입니다.

예로부터 뒤주가 마루에 [illegible] 어 놓이더니마는 실상 이것은 생하기 [illegible] 하는 [illegible] 집안에 더 한층[illegible] 하게 [illegible] 하나는이의 [illegible] 을 너무 [illegible] 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마당에는 예부터 [illegible] 하데 [illegible] 인것파는 [illegible] 가잇습니다. [illegible] 에 [illegible] 本 [illegible] 서고 요즘 [illegible] 이 [illegible] 어 [illegible] 이 [illegible] 도 어렵 [illegible] 하 [illegible] 하창 더위에 시원한 [illegible] 요기가 [illegible] 잇습니다. 또 시시 [illegible] 보이는 것이나 장독 [illegible] 약초 [illegible] 가장이 [illegible] 에 [illegible] 서 [illegible] 계에 피시는 [illegible] 낡은 [illegible] 하면 매우 집안이 아름 답고 깨끗해 보일것 입니다. [illegible] 보이입니다. 원래 우리 부의 [illegible] 이

=찬간= [illegible] 내지 [illegible] 요사 [illegible] 잇습니다. 마루에는 [illegible] 시중이 [illegible] 이 [illegible] 가 [illegible] 이왕이 [illegible] 수잇는 빛게이 [illegible] 한데 [illegible] 이져 [illegible] 가주이 [illegible] 는데이 [illegible] 하고 보기에는 이 [illegible] 입니다. 그러니 [illegible] 입담이 [illegible] 시키들이 [illegible] 벽, 거는 [illegible] 에나 또는 [illegible] 혹은 [illegible] 지 [illegible] 에 [illegible] 이 놓고 [illegible] 우에 [illegible] 가지의 꽃이나 꽃이 놓인 [illegible] 아무리 [illegible] 입니다. 만 시 [illegible] 놓게 될때에는 [illegible] 에 [illegible] 이러면 [illegible] 보다는

=어항= [illegible] 좋고 [illegible] 가 화도 좋은 것입니다. [illegible] 대청이 [illegible] 입니다. [illegible] 나고 여름 [illegible] 에 새상[illegible] 은 것이나 집이 놓이면 첫여름의 생

=화초= [illegible] 앞에 [illegible] 하 [illegible] 와 꽃피는 때 [illegible] 하 [illegible] 하게 [illegible] 되는데

=컴컴= 방안 [illegible] 방에 [illegible] 하게 주 [illegible]

=자리= 가장 [illegible] 기분 [illegible] 부의 수용품이 가지 가지로 씀 [illegible] 수용에 [illegible] 상당한 장식도 됩니다.

다비

定州 김영태

[illegible] 비가 [illegible]

아빠 엄마 [illegible]

보 [illegible]

[illegible] 기 [illegible] 하시겟서요!

그래서

나는 [illegible] 손가락으로

[illegible] 이 [illegible] 엇지요

그것이 [illegible]

[illegible] 보고

사보 [illegible] 웃게 [illegible] 요!

나는 [illegible] 손가락만

빨고 [illegible] 엇지요!

◇—별그림 상약—◇

여름을 피는……

=백합= 백합꽃은 한가지 [illegible] 향기로운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하가시는 [illegible] 부가 [illegible] 이 [illegible] 아주 [illegible] 게 [illegible] 아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海外文藝消息

民衆詩人은 街頭로

【獨逸國際詩人協會】 [illegible] 는 民衆詩人으로서의 [illegible] 第一流詩人으로 [illegible] 文學 [illegible] 에 [illegible] 民衆의 [illegible] 에 [illegible] 하여 [illegible] 가 [illegible] 하고 [illegible] 自作詩의 小冊子 [illegible] 를 만들어 [illegible] 月給쟁이를 相對로 하여 [illegible] 詩人이 街頭에 나서는 것은 [illegible] 이다. 今日의 財政困難에 [illegible] 詩人도 또한 [illegible] 犧牲을 [illegible] 치야 할 것이다.」

紙上病院

머리털이 빠저

【問】 二十六세된 [illegible] 이온대 [illegible] 머리가 가렵고 머리털이 빠집니다. 그리고 [illegible] 없습니다. 이러한 병세가 [illegible] 병인가요? 자세히 [illegible] 하야 주시겟서요. 그리고 어떠 [illegible] 시원한 [illegible] 이 좋을까요? (一信生)

【答】 머리가 가렵고 털이 빠지면 다음 처방약을 [illegible] 으로 바르시오. [illegible] 치음 그런 [illegible] 으로 오시입니다. 처음부터 지각이 없어집니다. 그리

처방 [illegible] 八〇 [illegible] 八〇 水 四〇〇

右含嗽料

(京城府立診療所內科 朴鍾鐸博士)

목에담이걸려

【問】 二十二세된 남자인데 수년 전부터 가끔 목에 담이 걸려서 [illegible] 을 내이 무시한때 [illegible] 할때에는 [illegible] 이 [illegible] 가 이러면 [illegible] 하야 겨우 [illegible] 야 [illegible] 다시 걸리지 [illegible] 사용해야 [illegible] 걸리지 않고 시원해지겟습니까

【答】 자기양으로 자주 양수를 하야 보십시오.

(京城帝大齒科 [illegible])

다리가힘이없어

(帝大松井科敎室 [illegible])

【問】 생은 四十세된 남자인데 작년一월부터 두다리가 마치 힘도 없이 우연히 힘이 없기시작 하드니 그병세가 날로 더 하여지 서 [illegible] 하기가 [illegible] 더 곤란하야 가정에서 [illegible] 약간의 치료를 하야 보앗으나 효과는 조금도 없으니 무슨 방으로 치료해야 좋을지 치료방법을 자세히 하교하야 주시옵기 원합니다. (상신)

【答】 원인없이 다리가 무력하여지는 병이 하도 많으니까 단순하게 지금 날이가 힘이 [illegible] 니다. 다는 전기 치료를 해보섯으면 좋을듯 합니다.

處方

[illegible] 六〇〇

ホチール 二〇〇

亞鉛華 二〇〇

沈降硫黃 二〇〇

右一日分

[illegible] 음에 여러 가지의 정상이 [illegible] 다.

新刊紹介

紹介를 願하는 冊子는 一切 本社編輯局으로 [illegible] 送付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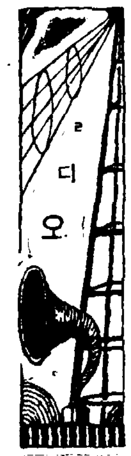
▲有畜農業五月號 發行所 名古屋市[illegible] 有畜農業社 定價十錢 振替名古屋六六一一番

▲新興創刊號 發行所 全州[illegible]山町 新興學校校友會

▲[illegible]四 五月合號 發行所京城 永樂町一丁目六五 [illegible] 定價五錢 振替京城一〇九六番

▲文教の朝鮮五月號 敎育者の自なる日本認識と本質的發展、農村救濟上敎育者の[illegible]進努力すべき中心目標[illegible]實行方案如何、朝鮮の島嶼、桃太郎の古代史に就て朝鮮の古[illegible] 其他 發行所 朝鮮總督府學務局內朝鮮敎育會 定價三十錢 振替京城一〇三〇番 大阪屋號書店

▲朝鮮地方行政五月號 [illegible] 道制と道制施行規則に就て、更生の農村を往く、社會事業と農村振興、農村振興を語る、行政雜[illegible] 其他 發行所京城太平通二丁目四四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定價五十錢 振替京城八一五番



明日의프로

廿一日 二日 JODK

晝間部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鳥賊)日用品時價 京城府 [illegible] 發表

▼正午時報 今日프로그램發表

▼午後十時五分 時調 이야기 어南[illegible] 金[illegible] 音樂伴奏

▼零時四十分 뉴스

▼二時十分 家庭講座 [illegible] 와 人生(一) 法學講師 李[illegible]

▼四時零分 [illegible] 職業紹介事項

夜間部

▼六時十分 管絃樂 組曲(서)레 [illegible] 二피기作曲 一、序曲二、[illegible] 三、아침四、[illegible] (나이팅게일) 五、[illegible]새

▼六時二十五分 라디오 學校 [illegible] 指揮 [illegible] 東京라디오오케스트라

[illegible] 에 對하야(一) 朱[illegible]

▼七時十分 [illegible] 大氣[illegible]

▼七時三十分 [illegible] 濟州島의 文化史觀(二) 崔南善

▼八時零分 音律一、[illegible] 二、 가락 [illegible] 三、上[illegible]四、[illegible] 五、下[illegible]六、念佛七、打令八 [illegible]九、界面 [illegible] 十、 [illegible] 十一、羽調 [illegible]

玄琴 [illegible] 伽倻琴 金相淳 [illegible] 閔完植 大笒 金永根 細笛 高[illegible]

▼八時三十分 連續俳劇調(二) 李東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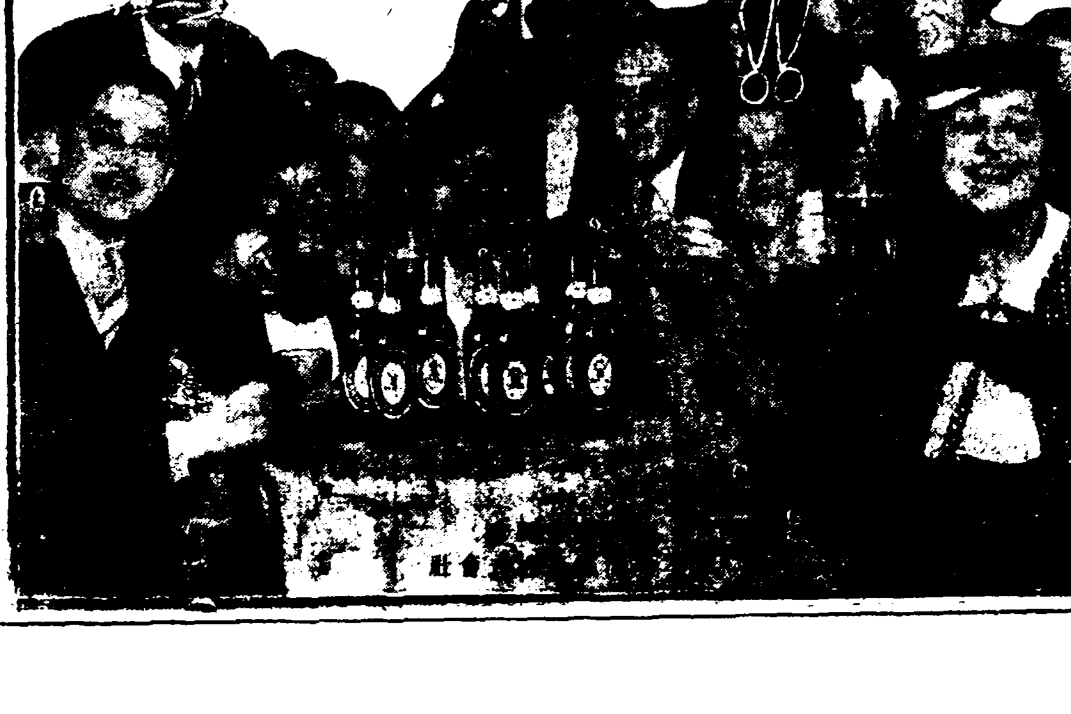
▼九時零分(A) 피아노獨奏 原 [illegible]子

▼九時零分 連續俳劇調 沈淸傳(二) 沈淸傳이 [illegible] 가는 대 李東伯 鼓手 池龍九

▼九時三十分 時報 氣象通報 [illegible] 人 [illegible] 明日프로그램發表

第一放送

▲午前六時半(A)基礎英語講座 ▲午後二時家庭講座 男女子供取ノ仕立方(▲二) 四時ニュース 職業紹介事項 ▲六時(A)管絃樂組曲「[illegible]」 レスピーギ作曲一、序曲二、[illegible]三、牝鶏四、ナイチンゲール五、郭公 ▲六時十一分(A)コドモノ新聞 ▲六時二十五分 支那語講座 ▲七時半(A)産業ニュース ▲八時(A)落語 ▲九時(A)ピアノ獨奏



春·夏·秋·冬

メヌマ로頭髮을美化
하니 개는테나떠는
데나粘性에나아모煩
累가없다
그대는참말幸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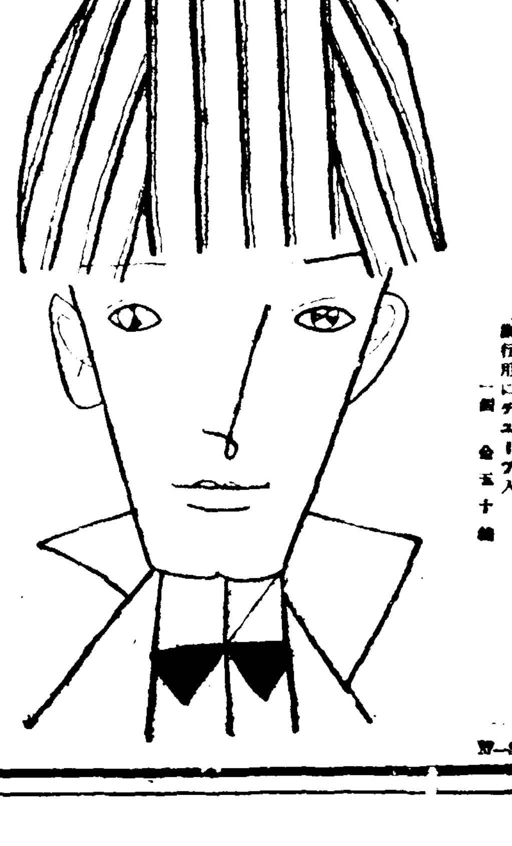
純植物性頭髮油의權威

メヌマポマード

新發賣 ... (small print) [illegible]

新發賣用ニチューブ入 一個 金五十錢

發賣元 東京 井田榮養堂 大阪



日ごとに上る
ユニオン景氣!!

멀리바다를건너서
米國市場에先鋒大將
日本代表麥酒ユニオン의
優秀한品質은본바닥을자랑하는
舶來麥酒를超然히凌駕하야
世界的으로그眞價를認識하니
一躍! 社交界의寵兒가되엇다

[illegible]會社